

GWANGJU

FOOTBALL CLUB

October 2014 / NO. 06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2014시즌 홈 폐막 경기

광주 FC vs 대전 시티즌

10월 25일(토) 14:00

Hyundai Oilbank K LEAGUE CHALLENGE

EVENT

푸짐한 경품



냉장고, 세탁기

경육고, 공진단, 비타민 등
(공개추첨)



다양한 먹거리

치킨, 솜사탕, 팝콘, 음료 시음회 등 (남문/롯데마트 입구)

넘치는 볼거리

바이올린, 댄스, 프리스타일 풋볼 공연 등(장내외 행사장)

팬들과 스킨십

팬사인회, 프리허그, 그라운드 팬미팅, 사진전(장내외 행사장)

INTERVIEW

이젠 어엿한 에이스 김호남

“축구로 마음 아픈 것은 그만큼 좋아한다는 의미죠!”

NEWS

그가 돌아왔다! 임선영 Come Back!

점입가경 혼돈의 순위표, 광주에 필요한 것은?

원정에 강해진 광주의 반전 Story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래의 광주 선수들

그가 돌아왔다! 임선영

Come Back!



드디어 기다리던 그가 돌아왔다! 약 두 달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임선영이 화려한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

임선영은 지난 9월 28일(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4' 29라운드 FC 안양과의 홈 경기에 교체 출전하며 모처럼 경기장을 누볐다. 팀이 0-1로 뒤지던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된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며 팀 공격에 힘을 보탤다.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던 시즌 초의 100% 모습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의 호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팀에 녹아드려 했다.

특히 이날 복귀전부터 그의 득점 본능이 발휘됐다. 0-2로 패색이 짙던 후반 48분 왼쪽 측면에서 김호남의 크로스를 받아 헤딩 슈팅으로 안양의 골망을 가르며 추격 골을 뽑았다. 비록, 팀은 1-2로 패배했으나 마지막까지 추격의 불씨를 살려 놓는 집중력이 돋보인 순간이었다. 그렇게 임선영은 부상 복귀 후에도 자신의 실력을 어김없이 드러냈다.

임선영이 중요한 이유? 경기를 보면 답이 나온다!

임선영은 광주 전력에 핵심이다. 2011년부터 광주 창단 멤버로 올 시즌까지 4시즌 동안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보였고 어느 공격 위치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끌어냈다. 특히 올 시즌에는 개막전부터 득점을 가동하며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등 어느덧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중책까지 안고 있다.

광주에 임선영이 필요한 이유는 경기장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광주의 모든 공격은 그의 발끝부터 시작된다. 탁월한 트래핑과 드리블, 넓은 시야를 활용한 정확한 패스는 가장 큰 무기다. 지난 5일(일) 열렸던 30라운드 수원 FC전에서도 임선영의 존재감이 빛났다.

비록, 팀의 승리는 이끌지 못했으나 창의적인 패스와 가장 돋보이는 움직임 가져간 선수가 바로 임선영이었다. 상대인 수원은 수적인 열세에 몰려 거의 모든 선수가 수비에 가담한 가운데, 임선영의 좌우를 향하는 스루 패스와 감각 있는 볼 처리에 상대 수비가 흔들렸다. 100% 몸 상태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지만, 풀타임 동안 공격을 풀어간 장본인이었다.

현재 광주는 4강 플레이오프 티켓 획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선영의 부상 복귀는 광주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임선영 또한 남은 경기에서 광주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그와 광주가 일으킬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가 크다.

점입가경 혼돈의 순위표, 광주에 필요한 것은?

시즌이 막바지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K리그 챌린지의 순위표가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다. 1위 대전 시티즌과 9위 충주 험멜, 10위 부천 FC를 제외하고 2위부터 8위까지의 승점 차이가 불과 5점이다.

특히 올 시즌은 챌린지 우승팀이 다음 시즌 클래식 직행, 2위부터 4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강 플레이오프(클래식 11위 팀과의 경기)의 주인공을 가려낸다. 4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각 팀의 전쟁 결과는 현재 뻥뻥한 순위 형성을 만들었다.

남기일 감독대행이 이끄는 광주도 플레이오프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30라운드까지 10승 11무 9패 승점 41점으로 6위를 기록 중이다. 한때 6경기 무패 행진(3승 3무)으로 3위까지 올라서는 기쁨을 맛봤으나 꾸준함을 이어가지 못해 순위 굴치기를 이루지 못했다.

이제 시즌 종료를 몇 경기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남은 경기에서 승리의 흐름을 잡아 최종 목표인 승격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광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득점에 대한 조급함, 부담감을 버려라!

올해 광주의 고질적인 문제는 빈곤한 골 결정력이다. 압도적인 공 점유와 슈팅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의 아쉬움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훈련, 전술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칫, 선수들의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아닌 득점에 대한 조급함과 부담감이다. 광주는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고 있는 팀처럼 느껴질 정도로 급하게 공격을 펼친다. 어쩔 수 없이 공격진은 잦은 패스 실수와 부정확한 슈팅으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매 경기 선수들의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오히려 이 문제는 전술적인 실수보다 더 해답이 없을 정도로 힘겹다. 서로를 신뢰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쌓여 마음의 짐을 덜쳐내야 부족한 득점력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단번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세트피스!

경기 분위기가 밀리더라도 상대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세트플레이가 필요하다. 선수들의 약속된 플레이는 팀 분위기를 최고조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광주는 그러지 못했다. 이완과 이종민이 날카로운 킥으로 득점을 뽑아냈지만, 빈도가 낮았다. 특히 코너킥에서 날카로움을 잃으며 오히려 상대에 역습을 허용했다.

그동안 훈련을 통해 세트피스의 약점을 보완하려 했던 광주는 이제 그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왔다. 좀 더 세밀함에 중점을 뒀던 답답함을 해소한다면, 승격으로 가는 길에 세트피스가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원정에 강해진 광주의 반전 Story



1승 3무 5패. 광주 FC가 전반기 동안 원정 9경기에서 치른 결과다. 모두가 광주는 상위권에 포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버린 아쉬운 수치다. 어쩌면 전반기 원정 경기의 성적이 잘 나왔다면, 지금쯤 광주는 선두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강팀은 늘 홈 이점을 살려 꾸준한 성적을 내고 원정에서 승점을 따오는 경기로 순위 상승의 발판을 마련한다. 하지만 광주는 원정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침묵해왔다. 원정만 가면 점수가 뒤집어지는 뼈아픈 패배와 이렇다 할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경기를 보였다. 7월이 되어서야 시즌 원정 첫 승을 거뒀을 정도로 극심한 '원정 징크스'에 시달렸다.

이랬던 광주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언제 '원정 징크스'에 시달렸느냐는 듯 승승장구하며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켰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개막전부터 대구 FC 원정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15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까지 원정 7경기 동안 3무 4패를 기록했다. 7월까지 약 4달 동안 원정 승리가 없었다. 17라운드 고양 Hi FC전에서 시즌 첫 감격스러운 원정 승리를 기록했지만, 이어진 경기에서 안산 경찰청전에서 상승세를 잊지 못하고 다시 패배했다.

반격의 서막을 알린 건 올스타전 휴식기 이후 치러진 8월 후반기부터다. 후반기 첫 경기는 FC 안양 원정 경기였다. 부담감이 컸지만, 광주는 마철준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끊었다. 이후 광주의 원정 고공비행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0라운드까지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후반기에는 단 한 차

레도 패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정에서 홈과 같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의 후반기 원정 무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바로 11월 마지막 3연전이 모두 원정 경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시즌 막판까지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얼음판 승부가 예고될 것이 분명한데, 광주는 홈 이점을 살리지 못하기에 원정 3연전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광주는 후반기에 원정에서 파죽지세를 달리며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세라면 시즌 초반 1승에 그쳤던 '원정 징크스'의 한을 후반기 원정 무패로 이어가 목표인 플레이오프 티켓 획득에 쉽게 다가설 수 있다. 과연 달라진 광주의 원정 경기가 반전 스토리의 마지막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HOME	마지막 원정 3연전	AWAY
 안산 경찰청	11월 1일 (토) 14:00 안산와스타디움	 광주 FC
 부천 FC	11월 8일 (토) 14:00 부천종합운동장	 광주 FC
 고양 Hi FC	11월 16일 (일) 14:00 고양종합운동장	 광주 FC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래의 광주 선수들



광주 FC U-18 금호고등학교(이하 광주 금호고)가 '2014 아디다스 올인 K리그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금호고는 지난 9월 27일(토) 15승 3무 2패 승점 48점을 기록하며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14년 한 해 여러 대회가 열렸지만, 대부분이 토너먼트 방식을 채택해 진정한 실력을 가리기보다는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다. 그러나 '2014 아디다스 올인 K리그 주니어'는 총 21라운드의 리그 성적으로 우승을 가리는 진정한 실력자를 가리는 유소년 대회이다. 광주 금호고는 K리그 주니어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축구 명문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1975년 창단한 광주 금호고는 김태영, 윤정환, 고종수를 비롯해 기성용, 이승기, 고창현 등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명문 학교다. 지난 2011년 광주의 U-18 팀으로 지정되며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달려왔다. 광주 금호고를 오랫동안 이끌고 있는 최수용 감독은 수많은 유명 선수를 배출한 '스타 제조기'로서 현재 나상호, 손민우, 주종대 등을 U-18의 정상급 선수로 만들어냈다.

최수용 감독은 지난 9월 20일(토) 대전 시티즌 U-18 충남기계공고와 홈경기 승리 후 가진 우승 행사에서 "올 시즌을 시작할 때 우리 팀이 좋지 않았지만, 이 연령대는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신력과 노력이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18경기에서 22골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경기당 1골 이상을 기록한 득점왕 나상호에 대해서는 "나상호는 중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선수였다. 신장이 작고 체력이 약

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동물적 움직임, 골 넣는 능력이 타고난 선수라 목표의식을 확실히 심어줬다. 자신의 능력 100% 이상을 발휘한다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명장으로서 애제자에 대한 성공을 확신했다.

광주 금호고는 개인상까지 휩쓸며 우승의 기쁨을 더욱 만끽했다. 최수용 감독과 나상호 코치는 감독상과 코치상을 수상했고 주장 박인서는 수비상을 받았다. 득점왕 나상호는 대회 최우수선수상까지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이외에도 2학년인 손민우와 정문철은 각각 도움과 득점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내년 시즌 2연패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해주었다. 손민우와 정문철은 "리그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9연승 이후 단합이 잘됐다. 한 경기를 남기고 우승해서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U-18 최정상급 선수인 나상호는 이미 U-19 대한민국 대표팀의 단골손님이었다. 비록 이번 미얀마 AFC 챔피언십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뉴질랜드에서 개최될 U-20 월드컵을 노리는 중이다. 게다가 95년생이 주축인 대표팀의 96년생인 나상호는 경쟁자들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대해 나상호는 "청소년 월드컵에 나간다면 힘을 비축하고 웨이트를 많이 해 힘에서 지지 않겠다. 해외선수와 플레이해도 자신 있게 하겠다"며 당찬 각오를 밝히 광주 금호고의 최고 스타임을 확인시켜줬다.

광주의 미래는 대한민국 최강 U-18 팀이 된 광주 금호고 선수들로 인해 전망이 매우 밝다. 지금 2학년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내년 시즌, 2연패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지금의 선수들이 활약할 3~4년 뒤에 광주가 K리그 클래식으로의 승격과 함께 첫 우승을 차지하는 것도 꿈은 아니다.

“축구를 하면서
마음 아팠다는 것은
그만큼 축구를
좋아한다는 의미죠!”

No.11 **FW**

김호남 Kim Ho Nam

1989.06.14 / 178cm, 72kg

해성중 - 전주공고 - 사간도스(일본) - 광주대

K리그 통산 : 60경기 13골 8도움

2014시즌 : 29경기 6골 2도움

Q. 올해 광주 FC 월간 매거진 마지막 6호 모델로 선정되었어요. 마무리를 장식하는 소감은 어떤가요? 인터뷰를 아루나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매거진이라 더 감사하네요.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까지 다짐했던 것들을 이뤄야죠!

Q. 지난 30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하셨어요. 안구 쪽에 있는 뼈가 골절됐고 몇 바늘 꿰맸어요. 아직 부어있는 상태라 당분간은 운동할 수 없어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부상을 당하고 경기장에 나가면서 무조건 우리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경기를 보면서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죠.

Q. 경기 후 임선영 선수도 김호남 선수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모든 분이 걱정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임)선영이 형과 창단 멤버이기 때문에 가장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부상으로 호흡을 조금밖에 맞추지 못했지만, 호흡할 때는 경기력이 좋았어요. 최근 선영이 형이 복귀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제가 부상을 당해 선영이 형만큼 저도 아쉬워요. 그리고 SNS를 통해 많은 분이 걱정을 해주셔서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Q.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1골 2도움)를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부상에 대해 아쉬움을 클 것 같아요. 포인트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어요. 수원전에서 나뉘었던 기억이 없었기에 자신감이 있었죠. 부상을 당해 아쉽지만 상대 선수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직 시즌은 남아있고 부상에서 복귀해 다시 일어서야죠!

Q. 현재 챌린지 순위표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광주도 후반기에 반격을 시작하면서 플레이오프 티켓에 도전하고 있어요. 8월 후반기가 시작되고 승점을 잃은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선수들이 전술에 녹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져도 우리 팀은 흔들릴 팀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끼리는 남은 6경기 중 4승을 하면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팀 공격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더 성숙해진 플레이가 눈에 띄어요. 특히 상승세를 잇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제 공격 포인트가 적은데도 팀 내 1위인 점이 쑥스럽네요. 작년에는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많아졌죠. 물론,

골을 못 넣고 날린 것도 많았어요.(웃음) 공격수는 찬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보다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마무리 과정에서 침착하지 못했던 것인데, 앞으로 개선해야죠.

Q. 어느덧 광주에서 4년째 활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데뷔 이후 2시즌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당사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이유로 경기에 못 나갔는지 생각을 안 하고 걱정만 했어요. 당시의 저 자신에게 정말 미안해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정신적인 면에 후회하죠. 힘들었지만 지금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축구를 가장 좋아했던 거죠. 축구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그만큼 축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가족들도 많은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면 이겨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버텼던 거죠.

Q. '호남의 아들' 김호남 선수는 어릴 적부터 호남지방에 생활하셨던 건가요?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부안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해서 해성중, 전주공고, 광주대를 나왔으니까 모두 호남 지방에 있었죠.(웃음) 호남이라는 이름 때문에 호남 지방에 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웃음) 사람들도 많이 기억을 해주세요.

Q. 별명은 있었나요? 대학교 때 별명이 호구였어요.(웃음) 제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에 '김호'가 들어가니까 그냥 호구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이 호구라고 부르면 뒤돌아보고 제 이름 같았죠. 어느 날 시내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탔어요. 자리가 나서 친구들이 "호구야! 자리 생겼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진짜 호구처럼 쳐다보는 거예요.(웃음) 그래서 정말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별명에 다른 의미는 절대 없어요.(웃음)

Q. 축구 선수의 꿈은 언제부터 갖기 시작하셨나요? 원래 축구 선수의 꿈은 없었어요. 시골 분교에 다니다가 폐교되면서 읍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 축구를 시작했죠. 사실 축구를 하고 합숙 생활이 적응 안 됐고 부모님도 정말 보고 싶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축구를 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죠.

Q. 일본 생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대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대학교 사정상 대회를 쉬게 됐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에이전트를 통해 일본 사간도스로 넘어갔어요.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테스트라도 보겠다고 했죠. 마침, 사간도스에 윤정환 선생님이 수석코치로 계셨어요. 대표팀에 뽑혔을 당시 윤정환 선생님께서 오셨었는데 홍명보 감독님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본 뒤 들어가게 됐죠.

Q. 일본 생활은 어떠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골통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 정신이 없었어요. 몰입해야 하는데 제가 하는 행동들을 감독님께서 이해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망나니 짓을 한 건 아니고요.(웃음) 이때 경험은 정말 도움이 됐어요.

Q. 이후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해 느끼는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창단 멤버였기에 다 대학교에서 온 선수들이었어요. 일본에서 뉘우친 것을 되새겼고 모든 것이 동등한 상황이었기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동계 훈련 때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당시 느낀 게 경기를 못 뛰는 선수들은 감독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몸 상태가 좋아야 해요. 저는 늘 그 시기에 몸이 좋지 않았죠. 감독님이 뛰는 시기를 정해주니까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해요. 지금도 뒤에 있는 선수들에게 더 마음이 가요.

Q. 아직 이뤄야 할 목표도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저는 시즌 전에 항상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놨어요. 올해 30경기 이상을 뛰고 10골 5도움을 하는 거예요.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하고 있을 때,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가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진 게 아쉽네요. 아직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이뤄야죠! 그리고 팀이 무조건 승격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Q.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SNS에서 한 팬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경기가 이기든 지든 광주 FC를 응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기는 광주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자체를 응원한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늘 경기 승리만을 위해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뒤에는 알게 모르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진심을 느꼈고 책임감이 생겼죠. 이에 보답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드려야죠! 이기는 광주, 지는 광주가 아니라 광주를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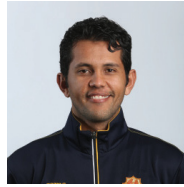
2014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길 감독대행



김영철 수석코치



카를로스 피지컬코치



알베스 GK 코치



주치의 이준영



GK 제중현



GK 백민철



GK 류원우



DF 정준연



DF 전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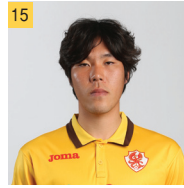
DF 최성환



DF 이완



DF 마철준



DF 김영빈



DF 이종민



DF 박진옥



DF 오도현



DF 정호정



MF 여름



MF 김민수



MF 김유성



MF 김우철



MF 권수현



MF 송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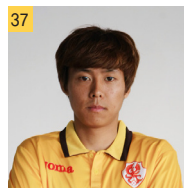
MF 홍태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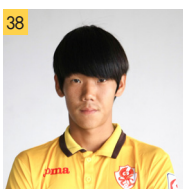
MF 조용태



MF 안성남



MF 박현



MF 윤상호



MF 이찬동



FW 임선영



FW 파비오



FW 김호남



FW 안종훈



FW 디에고



광주FC SNS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발행일 2014년 10월 11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동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화원, 이준호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c)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